

1930年代以後의 日帝侵略戰爭 動員과 民族抹殺政策

金 雲 泰
(教 授)

<目 次>

- 第一節 日帝의 兵站基地化政策
- 第二節 日帝의 強壓의 支配體制強化와 強制動員
- 第三節 皇民化運動
- 第四節 民族解放運動의 彈壓

第一節 日帝의 兵站基地化政策

日帝의 1931年 9月 「滿州事變」을 契機로한 中國大陸에의 侵略의 開始는 韓國을 日帝侵略戰爭遂行을 위한 兵站基地로서의 役割을 強要하였다. 日帝는 그 國民經濟가 未曾有의 危機에 봉착한 1920年代 末期부터 서둘러서 軍事獨裁體制를 準備하였다. 마침 軍部和 官僚가 結託하여 1932年 3月에는 政黨內閣을 打倒하고 齋藤實의 軍部內閣이 登場하면서 軍事的獨裁體制를 確立하게 되었다. 그후 植民地 韓國에서 所謂「內鮮一體」「皇民化」의 民族抹殺政策을 더욱 強化하였으며 民族抗拒運動을 徹底하게 彈壓하는 동시에 한편 「大陸兵站基地」「日鮮滿蒙經濟」政策을 標榜하면서 植民地의 隸屬化를 一層促進하고 韓國民族의 強制動員과 軍需資源의 「開發」略奪에 狂奔한 것이다.

또 日帝는 1937年 7月 「支那事變」을 契機로 中國侵略戰爭을 進展시키고 1941年 大平洋戰爭에의 廣大와 더불어 이러한 略奪政策을 더욱 強化하여 모든 韓國의 人力을 戰力化하고 또 모든 韓國의 物的資源을 軍需用으로 收奪하기 위해서 兵站基地로서 全面的인 戰爭動員을 強制한 것이다.

日帝의 韓國 兵站基地化 政策은 1930年代初 滿州事變을 契機로 해서 부각되었다. 그 經緯를 살펴보면 宇垣一成이 朝鮮總督에 就任한(1931年 6月 17日) 바로 3個月후에 滿州事變이 발발하였다(1931年 9月 18日). 宇垣은 일찍부터 滿蒙積極政策을 持論으로 내세웠던 日本政治人의

한사람으로서 滿州事變을 直接 도발한 當事者는 아니라도 그 事件의 情報를 入手하자 宇垣은 「滿州」에 新政權을 樹立케 해서 支那本土와 分離시켜 이를 相對로 善後措置를 取할 것을 當時 首相(若槻內閣)이 陸軍大臣(南次郎) 그리고 關東軍司令官(本庄繁)등에게 進言해왔다.⁽¹⁾

勿論 朝鮮總督으로서 中國問題에 介入한 것이 宇垣만이 아니었다. 事實은 齋藤實도 한때 中國의 動亂은 朝鮮의 治安에 影響이 있음으로 日本軍의 出動을 政府에 要求한 바 있었다 (1924年 9月 18日 시작된 第二次奉直戰爭當時) 要컨데 日本에게 있어서 「滿州」는 朝鮮과一體의 것이었다고 할수 있었다. 또 「滿州事變」 발발당시 羅南의 第19師團의 一部가 越境 出兵한 事實은 軍事作戰上 計劃된 일이 었으며 軍事面에서도 朝鮮과 中國 적어도 「滿州」와는一體의 것이었음을 實證한다. 元來 日本이 朝鮮을 占領하고 이를 領有한 것은 「滿州」로부터 中國北部에서 本土로 進出하는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南總督時代に 朝鮮을 大陸兵站基地라고 指稱한 것은 日本의 帝國主義的 膨脹政策에 비추워 볼때 새로운 일은 아니며 當然한 歸結이라 할수 있고 또 日帝의 大陸政策의 發展過程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1931年 6月에 朝鮮總督에 就任한 宇垣一成은 農村經濟의 再建을 위하여 農村振興運動을 내걸고 우선 總督府의 機構改革부터 着手했다. 그의 施政方針⁽²⁾에 立脚해서 1932年 6月 道知事會議를 召集해서 「農山漁村의 振興, 自力更生의 實施計劃」을 發表하고 11월에 그 實施에 着手했다. 이 計劃은 當時 荒廢化된 韓國農村⁽³⁾을 救濟 또는 復興再建한다는 名目下에 所謂 「農村振興運動」과 「自力更生運動」을 一大國民運動으로서 展開하였으며 이 運動의 中心目標은 「窮退治, 借金退治, 借金豫防」에 두고 全體主義的인 動員體制로 再編成하기 위한 것이었다. 朝鮮總督府는 이 運動을 통하여 公私의 各機關을 動員하고 「地方振興」「精神作興」「社會教化」「農村振興」「自力更生」 등을 象徴적으로 標榜하는 運動을 朝鮮全域에 일으켜 所謂 「日鮮融合」「內鮮一體化」를 推進하고 나아가서는 韓國民의 人力을 食糧增産과 大陸侵略政策에 動員利用하였던 것이다.

農村振興運動을 推進하기 위하여 우선 總督府의 機構를 다음과 같이 改革하였다. 當時總督府의 機構는 總督官房과 內務局·財務局·警務局·學務局·殖産局·法務局·土地改良部·山林部の 6局 2부와 그리고 外局으로 鐵道·遞信·專賣의 三局이 있었다. 그중 殖産局의 編制를 商工 水産 鑛山の 三課로 編成하고 土地改良部和 山林部の 二部가 分掌해온 業務와 殖産局에 속했던 農林, 畜産의 二課의 業務등 農村을 對象으로하는 業務들을 一括관장하는 農林局을 新設했다.

(1) 「宇垣一成日記」 1931年 10月 5日

山邊徳太郎著 日本統治下の朝鮮 岩波書店 776 pp. 154.

(2) 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年史」 p. 668

(3) 宇垣< 朝鮮總督으로 着任한 當時의 朝鮮農村의 實情은 암담한 것이었다. 農民의 8割을 占하는 小作農의 生活은 食糧의 不足과 負債의 重壓으로 生氣를 잃고 있었다. 水田 165萬町步中の 天水畚이 75萬町步나 되며 이는 雨水에만 依存하는 不安定한 耕作이었다. 또 舊來의 年中行事的 惰性的인 春窮과 高利債 그리고 内外의 不況으로 農村生活은 悲慘하였다.

農村振興運動의 最高指導機關은 朝鮮總督府 農村振興委員會로서 그 構成員은 委員長(政務總監) 委員(內務局長, 財務局長, 殖産局長, 農林局長, 法務局長, 學務局長, 警務局長, 遞信局長, 鐵道局長, 專賣局長, 京畿道知事, 文書課長, 地方課長, 司計課長, 理財課長, 商工課長, 水産課長, 土木改良課長, 林政課長, 學務課長, 社會課長, 保安課長, 朝鮮總督府 囑託 2名)으로 構成되었다.

이 中央機關 밑에 各道の 知事를 委員長으로 한 各道 農村振興委員會가 島·郡에는 島司·郡守를 委員長으로 하는 各郡島 農村振興委員會가 또 各 邑·面에는 各 邑面 農村振興委員會가 設置되었다.

朝鮮總督府는 「農村振興運動」을 推進함에 있어서 各道參與官會議 및 全國府尹, 郡守會議를 開催하고 總督府 各道, 府郡, 島 各邑面等の 各級行政機關에 「農村振興委員會」를 設置해서 2600名의 事務職員의 採用과 各級官公吏에 對한 農村振興事務에 關한 講習會 開催 그리고 巡迴講演會와 時局匡救講習會등을 開催하여 우선 이 運動의 理念을 宣傳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또 總督府新設農村局에 農村振興課를 設置해서 行府支援을 制度化하였다

總督府는 이 運動을 精神主義로 展開하려는 意圖에서 篤農主義 精農主義의 日本農本主義者 山崎延吉를 指導者로 해서 그의 朝鮮內의 講演으로부터 시작했으며 다음 宇垣總督 自身이 全國의 郡守, 島司를 서울에 모아 놓고 直接 農村振興運動의 趣旨와 精神을 講述하고 激勵하면서 一般에의 趣旨의 徹底를 圖謀하였던 것이다.

마침 1933年 3月에는 「農家經濟更生計劃樹立에 關한 件」이라는 農村振興을 위한 要綱目標을 政務總督(今井田清德)의 名義로 指示하고 다시 1935年 4月 30日에는 「全鮮農山 漁村振興 關係官大會同」을 開催해서 計劃實施에 關한 評價를 하였는데 이 「農家經濟更生計劃」의 基本方針은 農家個個의 經濟更生의 具體的基本方策과 아울러 그 精神生活姿勢를 밝히는 동시에 農漁村의 剩餘勞力利用에 의한 營農의 多角化와 副業을 獎勵하고 나아가서는 自給自足에 關한 經費支出을 節約함으로서 春窮과 借金を 退治하려는 데 있으며 이 方針을 具體化하기 위하여 家族調査, 兼業狀況調査, 土地利用狀況調査, 農業經營狀況調査, 經濟狀況調査 및 勞力調査等を 實施한 것이다.

이 運動의 遂行을 위해서 全農家每戶를 獎勵하고 指導하는 單位로 삼고 各農家마다 所謂 「農家經濟更生 5個年計劃」을 樹立케 해서 그것을 一面 一郡 一道 그리고 全國的으로 順次 波及시켜 「道, 郡, 島, 邑面은 勿論, 警察, 官憲, 學校, 金融組合等 渾然一體」가 되어 農民 「指導」의 第 1線에 내세우고 下級行政官吏로 하여금 가장 有機的이고 徹底하게 動員하여 특히 警察官이 앞장서서 治安 政策과 農業政策을 병행시켜 強行하였던 것이다.⁽⁴⁾

前述한 「農家經濟更生計劃」이란 結局 自給自足으로 農家經濟의 再建을 하라는 것으로 이

(4) 今井田節子, 「1930年代 日帝下朝鮮における『農村振興運動』의 展開」 歷史學研究 297號

는 社會發展의 法則에도 逆行하는 것으로 그 失敗는 처음부터 明若觀火한 것이었다.

이 計劃을 더욱 具體化한 「農家經濟更生指導計劃要綱」에 의하면 農家每戶에 對하여 일일히 戶別指導는 不可能하므로 農家全體中에서 어느 部分을 선정해서 그 農家를 「更生」시켜 이를 全農村이 波及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1. 指導部를 設置計劃樹立
2. 指導部를 選定
3. 基本調査를 施行
4. 農家經濟更生計劃의 樹立
5. 經濟更生計劃의 實行

의 5個項目을 實行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總督府는 1933年 3月과 1934年에 걸쳐 5110部落과 12萬農家戶에 對해서 更生計劃을 樹立, 實施했으며 나머지 230萬戶의 방대한 窮乏部落에 對해서도 계속 計劃을 推進할 豫定으로 있었던 것 같으나 그러나 이 「農家更生 5個年計劃」은 結局 1933年 3月부터 1936年 8月까지 3年 5個月間에 事實上未完成으로 끝났었던 것이다. 總督府官僚는 이 計劃實施의 結果를 「成績良好」라고 極口 찬양하여 評價하고 있었으나 實際上은 朝鮮農家經濟의 「救濟再建」이란 名目下에 窮乏農家에 對하여 보다 節約을 強要하였고 農民의 勞動力을 動員하여 節約 貯蓄 및 食糧增産에 의하여 戰爭協力을 強要한 동시에 특히 侵略戰爭에 對備하고 韓民族을 抹殺하기 위한 政治的社會化를 위하여 精神面에서 「皇國臣民化」 또는 韓民族의 「亞日本化」를 窮極의 目的으로 強制로 推進했던 것이다.

마치 日帝의 國內政治가 1936年 2.26軍部쿠데타 事件을 契機로 軍部獨裁體制로 移行되면서 1937年 7月에는 本格的인 中國侵略을 위한 戰時體制에로 轉換하자 韓民族에 對한 戰爭遂行政策에 對한 全面的 協력이 더욱 強要된 것이며 여기서 韓民族을 「內鮮一體化」 또는 「皇國臣民化」하기 위하여 總動員함과 아울러 經濟的으로 「農工併進」 및 戰時統制政策을 推進하여 所謂「大陸兵站基地」化를 꾀하였던 것이다. 즉 大陸兵站基地로서 地下資源과 食糧을 收奪하고 軍需工業을 擴張했으며 나아가서는 國家總動員法(1938年)에 의한 物質動員과 生産擴充計劃 및 戰時統制經濟를 強行한 것이다.

뒤이어 1936年 8月에 前陸軍大臣 및 前朝鮮軍司令官을 歷任한 南次郎이 朝鮮總督에 就任하자(政務總監大野綠一郎) 所謂「內鮮融和」「鮮滿一如」「一視同仁」 및 天皇主體說을 基調로 하는 「國體明徵」 등의 統治方針을 표방하고 보다 徹底한 民族抹殺과 「皇民化」政策을 強要했다.⁽⁵⁾

(5)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p. 409

「朝鮮施政에 關한 諭告, 諭示並に 演述集」 1927—1937年 3月) p. 4

南總督이 부임한 時期의 中心施策으로서 (1936년 9월 第一次 道知事會議에서 強調) 內地, 朝鮮, 滿州를 一貫하는 統治의 必要가 強調되고 있으며 1937年 4월의 第2次 道知事會議에서는 國體明徵 鮮滿 一體, 敎學振作 農工併進, 庶政刷新等 五大政綱이 發表되어 이에 따르는 具體的 庶政指標가 提示되고 있다.

即 1937년 神社參拜를 強要하기 위하여 一面(村)一神社의 設置를 推進하고 또한 모든 行事に 앞서 所謂「皇國臣民의 誓詞」의 裁章을 強制하였다. 1938년에는 志願兵制度를 採擇해서 뒤이은 徵兵制를 準備했고 또 國體明徵 內鮮一體 忍苦鍛鍊의 三大綱領에 의거하여 朝鮮 教育令을 改訂하고 學校의 名稱 教育의 內容등을 日人學校와 全的으로 同一하게 하고 朝鮮語의 使用을 禁止하였다. 1939년에는 「創氏改名」制度를 實施해서 韓國民의 姓까지도 日本式의 氏名으로 고치게 하였고 또 國民徵用令을 適用해서 많은 韓國民을 強制徵用하였다.

한편 日帝는 中國侵略遂行을 위하여 國民總動員體制의 編成을 全國的으로 強行하고 이에 따라 軍需工業總動員法 國家總動員法을 1938년에 制定하였으나 植民地韓國에 있어서는 보다 橫暴하게 強權을 發動하여 모든 物的 人的資源을 侵略戰爭遂行에 投入시켰으며 특히 所謂「國民靑神總動員運動」을 大的으로 展開하여 1938년에 朝鮮聯盟을 設置하고 1940年 10月에는 國民總力朝鮮聯盟이란 기치(旗幟)아래 이 運動을 展開하였다.

이렇듯 南次郎 總督은 부임以來 특히 「鮮滿一如」「日滿不可分」이란 표방말에 關東軍司令官과의 사이에 治安, 産業, 交通, 文化等諸部門에 걸친 廣範한 協定을 締結하여 蘇滿國境 警備, 抗日武裝獨立軍의 共同彈壓 鴨綠江 豆滿江의 橋梁架設, 水力發電計劃 郵便通信의 簡便 開拓農民의 入植 食糧問題의 協力등을 促進했으며 1941년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鮮滿一體化」를 推進하는데 政策의 重點을 두었다.

마침내 日帝가 侵略戰爭을 擴大해서 太平洋戰爭을 도발하자 南總督은 그 對韓統治方針으로서 國民總力運動을 一層徹底히하고 皇國臣民化訓練을 強化하고 治安對策의 強化, 그리고 滿州開發의 協力등 「鮮滿一如」政策을 더욱 徹底化하는 同時에 生産力擴充과 戰時經濟體制의 強化 나아가서는 勞務動員을 積極的으로 推進하였다.

다음 1942年 5月에 小磯國昭가 總督으로 赴任하자(政務總監田中武雄) 對韓植民統治方針으로서 「皇國臣民」으로서의 自覺과 天皇主體說을 基調로하는 「國體의 本義」에 透徹함을 첫째 方針으로 強要하고 아울러 侵略戰爭完遂를 위하여 物質的 肉體的 및 精神的 道義上的 모든 方面에서 「生産戰力의 決勝的增强的 責務貫徹에 總力을 結集하는」 새로운 國民總力運動의 強化를 根本方針으로 삼았으며 韓國統治의 不動의 鐵則은 完全한 一視同仁의 理想을 達成하는데 있다고 欺瞞한 것이다.⁽⁶⁾

小磯總督은 「大東亞戰爭」의 長期態勢에 對備해서 國防力의 根幹이 되는 生産力의 擴充強化를 위하여 生産力擴充運動實施要綱을 發表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勤勞者 企業最高幹部 官公吏등 全韓國人民을 動員하는 國民總力運動을 展開하였다. 그 重要政策은 다음과 같다.⁽⁷⁾

(1) 「國體의 本義」의 徹底化—日本의 國體에 비추어 「內鮮一體」「同化政策」의 必然성과

(6) 朝鮮總督小磯 「諭告 訓示演述總攬」 第二輯 p.3

(7) 同上 揭書 pp. 69-77

可能性을 合理化하는데 重點을 두고 이를 學校教育의 教科目과 志願兵 및 徵兵準備訓練의 科目 또는 官公吏를 비롯한 各種鍊成科目 등에서 徹底的으로 注入하도록 했다.

(2) 「道義朝鮮」의 確立—戰力增強의 根源은 「國民道德의 昂揚」에 있다하여 精神的行事 및 訓育을 內容으로 하는 各種 訓練을 展開하였다. 修養鍊成은 官民全般을 對象으로 徹底하게 實踐하였으며 所謂「皇道修鍊院」(總督府中央指導者鍊成所)을 新設하여 指導者鍊成 職場鍊成 學校鍊成 및 地方指導者鍊成 등으로 區分해서 一定期間 國體學 古典 日本의 世界觀 등의 講習을 받게 하고 아울러 國民儀禮 武道教練 體操 勤勞作業 등의 訓練을 實施하였다.

(3) 徵兵制度를 準備하기 위하여 徵兵制度의 本旨의 普及 戶籍整備 日語의 普及와 常用 및 日常生活化를 強力히 推進하였다.

(4) 生産戰力增強施策으로서 食糧 鑛工業 電力을 包含하는 戰略物資의 增産 勞務者의 大量徵用 國民貯蓄의 強制 中國 滿州 朝鮮 間의 軍事輸送力의 強化 治安의 維持 地方行政의 刷新 등을 強行 하였으며 이밖에 理工系專門校의 整理 등 教育戰時非常措置 學徒動員體制 國民勤務體制 등의 決戰非常措置를 斷行하였다.

마침 日帝의 敗戰을 앞두고 1944年 7月에 阿部信行이 마지막 總督(政務總監遠藤柳作)으로 부임하였다. (時期 1944.7-1945.8) 阿部總督은 韓國支配에 最後의 發惡으로서 戰爭繼續을 위한 物的·人的戰力의 增強에 注力하는 동시 「國民義勇隊」를 編成하여 敗戰退의 危機下에서 警備態勢를 強化하고 非協助的인 韓國民에 대해서는 가혹한 檢學와 彈壓을 분사하는 동시 離反하는 韓國民을 잡기위하여 갖은 懷柔策을 쓰는데 광분 하였다.

第二節 日帝의 強壓的 支配體制強化와 強制動員

日帝는 1930年代 後期 이래로 大陸侵略戰爭이 長期化되고 이어서 太平洋戰爭을 도발하기에 이르렀으나 戰勢는 해가갈수록 점차 不利해지고 韓民族의 國內外에서의 反口 反敵 및 民族解放運動이 活發해지자 支配體制的 強化와 그 對策에 몰두하기에 이르렀다.

日帝는 滿州侵略開始以來 韓國內에서 그軍事 警察力을 증강하고 「思想犯」團束을 위하여 特別高等係警察網을 擴充하였으며 國內外에 있어서의 抗日民族運動을 強壓하기 위하여 言論, 集會, 出版, 結社의 自由를 극단히 억압하는 동시에 愛國者를 무자비하게 걸거 투옥 또는 학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敗戰의 氣色이 걸어지면서 日帝는 時局認識啓蒙運動, 時局座談會 등을 實施하고 獻金 慰問 등의 戰爭協力과 志願兵制를 強行하는 동시에 警察, 軍隊 憲兵 등을 中心으로 重要施設 警備強化, 檢學活動, 不審訊問 「不穩」과 流言 비어 취체 등 特別警戒을 實施하여 治安確保에 분주하였다.

다음에 警察行政機構의 擴充을 통하여 獨裁的支配體制的 強化傾向을 엿보기로 하겠다.

1937年 10월에 國外로부터 愛國者의 國內「潛入」을 警戒하기 위하여 京畿道와 咸鏡北道에 外事警察課를 新設하였으며 1939年 7月 警防團을 組織하였는데 이는 道知事 警察署長의 指導監督 밑에 平時 戰時의 防空 消防 및 水防 其他의 警防에 對備한 것이지만 同時에 警察의 補助機關으로서의 役割도 수행하였다(警防團數 2427 警防團員 181, 221人).

日帝는 1936年 12月부터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을 實施하여⁽⁸⁾ 治安維持法 違反者로서 起訴猶豫, 假出獄, 滿期出獄者등에 대하여 그 思想活動을 取締하고 一舉一動을 監視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咸興, 清津, 平壤, 新義州, 大邱, 光州의 7個所에 保護觀察所를 設置하고 轉向하지 않은 所謂 思想犯을 整理한 것이다. 또 1937年 月에는 「大和塾」등의 思想保護 團體를 設置하고 이른바 思想犯을 無條件加入시켜 連座式으로 監視를 받게 하였다(1941年 現在 : 7個團體 9825人) 또한 1938年 7月에는 保護觀察所가 中心이 되어 思想轉向者를 囊括하여 「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을 結成하여(1940年 現在 7支部 72分會 3300餘名) 思想報國運動을 強行하였다.

1937年 7月에는 「朝鮮中央情報委員會」를 設置하고 情報, 啓蒙 및 宣傳에 關한 事項을 調査研究 한다는 名目으로 著名韓國人士에 對한 情報를 수집하였다.

1941年 2月에는 非轉向「思想犯」을 社會로부터 隔離 拘束하기 위하여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을 制定實施하고 豫防拘禁所(保護教導所)를 西大門拘置所內에 두어 強制收容을 開始하였고 이에 治安維持法을 改定하여 (1941年 5月) 그 適用範圍를 擴大시킨 豫防拘禁制度를 實施하였다.⁽⁹⁾

이밖에 戰爭遂行에 必要한 防諜을 強化하기 위하여 從來의 「軍機保護法」을 改定하는 동시에 1941年 5月에는 「國防保安法」을 實施하여 軍事機密外에 外交, 財政, 經濟의 機密에도 廣範圍 하게 이를 適用하였고 同年 12月에 太平洋戰爭이 勃發하자 「朝鮮臨時保護令」을 公布하여 戰時의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超非常時的統制를 加하였다. 특히 結社(團體)는 許可制로 하였다.⁽¹⁰⁾

1941年 12月에는 臨戰防衛對策을 세우고 이에 따라 1944年 8月에는 防衛本部를 設置하고 治安確保를 위한 「非常警備計劃」으로서 武裝警察官의 編成과 警防團, 學校總力隊 警察豫備員 警察補助員等の 總動員을 計劃하고 특히 都市工場 및 沿岸主要地警備를 위한 特別警察隊를 設置하였다.

1941年 7月에는 敗戰을 앞두고 國民總力朝鮮聯盟을 解體하여 「朝鮮國民義勇隊」를 組織하고 防空 增産 輸送 作戰活動의 補助를 담당케 했으며 그 指導組織으로 總督 및 道知事가 各 總司令官 및 司令官이 되고 下部組織으로는 愛國班을 單位로 府, 邑, 面의 地域組織과 官

(8) 1936年 12月 制令第16號

(9) 1941年 2月 制令第8號

(10) 1941年 12月 制令第30號

民의 職場組織 그리고 通信 輸送 醫療의 特技隊가 編成되었다.

다음 日帝軍 隊의 韓國內配置을 보면 陸軍의 最高統率機關으로 朝鮮軍司令部는 龍山에 있어으며 軍司令部는 大將 또는 中將으로 親補하여 天皇에 直屬하였다. 朝鮮軍은 2個師團으로 第19師團은 羅南에 第20師團은 荒山에 常置하였다. 羅南의 第19師團은 滿州에서 作戰이 惹起되는 경우 滿州로 出兵시킬 一軍事的使命을 띠운 것이 었다. 그리고 軍事警察機關으로서 朝鮮憲兵隊가 있었는데 서울에 憲兵隊司令部를 두고 서울, 大邱, 平壤, 咸興, 羅南等に 憲兵隊管區를 두었다.

한편 日帝의 強制動員을 살펴보면 日帝는 戰力を 補充하기 위하여 우선 靑少年 및 學徒를 日軍에 強制編入하였으며 韓國人 壯年들은 強制勞務로 動員하였다. 즉 1938年 4月에는 陸軍 特別志願兵制度를 또 1943年 8月에는 海軍 特別志願兵制度를 實施하여 強制訓練하였으며 1938年—1943年에는 當時 韓國人 專門學校 大學在學生 23681名을 所謂「學徒志願兵」으로서 強制로 兵營에 收容하였다. 그리고 1944年 4月에는 義務兵役으로서 徵兵制를 實施하였다.⁽¹¹⁾

勞力動員은 日帝의 侵略的 所謂 大陸前進兵站基地化 政策에 의한 軍需工業化와 병행해서 積極적으로 推進되었던바 1938年 「國家總動員法」의 適用, 實施와 1939年 7月의 「國民徵用令」公布에 따라 韓國內 日本其他地域에 募集, 官斡旋, 徵用等の 形式으로 強制動員되었다. 또 1942년부터는 大規模의 「國民動員計劃」을 세워 所謂「勤勞報國隊」라는 名義로 數 많은 韓國人이 日本各地의 炭鑛 金屬鑛山 水力發展 鐵道 道路 軍需工場은 물론 軍事道路飛行場등의 軍事基地工事, 捕虜監督의 軍要員으로 부터 慰安婦에 이르기까지 到處에서 生死居處도 家族에게 알리지 않은채 苛酷한 條件 밑에서 配當人員數에 따라 強制로 指名되어 連行되었다.⁽¹²⁾

그리고 1944年 8月에는 「女子挺身隊勤勞令」을 公布하여 數10萬에 達하는 12~40歲의 未婚韓國女性을 動員하여 日本과 韓國內軍需工場에 또는 行方도 알리지 않은채로 南方이나 中國戰線에 慰安婦로서 連行되었다.

또한 陸海軍要員(軍屬)으로서의 動員도 太平洋戰爭開始以來로 急速히 增加하였다. 例컨데 南方에서의 緊急土木作業(飛行場, 道路 橋梁建設)에 従事케 하기 위하여 海軍作業愛國團으로서 3萬2,48名 또 1944年 12月現在 北部陸軍 經理部要員(炊事係)으로서 7061名 美英

(11) 特別志願兵은	1938年에	志願者數 2,946	採用者數 406
	1939	12,348	613
	1940	84,443	3060
	1941	144,743	3,208
	1942	254,273	4,077
	1943	303,394	9,300
「義務兵役」徵兵數는	1945年 8月 現在	{ 陸軍 186,980	
	〃	{ 海軍 22,299	
		계 209,279	

로 推計된다.

(12) 強制動員인 韓國人은 1939—1945期間에 約 113萬名이며 中 炭鑛이 49萬3千名으로 가장 많고 金屬鑛山이 11萬3千名 土建에 17萬6千名 工場其他에 30萬4千名에 達하였다.

人捕虜 監視要員으로서 3223名 運輸部要員으로 1320名이 動員되고 있다. 이밖에 中國日本其他의 戰線과 後方に 差出된 軍要員의 實數는 우리가 알고 있는 以上の 많은 數에 達하리라고 推測이 된다.

그리고 數萬名의 廣島 長崎市에 強制動員된 韓國人이 原爆犧牲者가 되었고 太平洋戰爭中 軍屬으로서 「오끼나와」에 連行된 數많은 韓國人이 虐待와 虐殺를 當하였고 1931年 日帝의 滿州侵略開始以後 百餘萬의 韓國人이 滿州로 移入되었으나 이것도 本質的으로는 韓國人의 追放 連行 및 利用이었다. ⁽¹³⁾

第三節 皇民化運動

日帝는 1910年以來 韓國民族을 抹殺하여 「皇國臣民」으로 同化시키려는 여러 方策을 썼다 그리고 1930年代에 들어와서 侵略戰爭의 進展에 따라 人的資源의 不足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다 體系적이고 強硬한 同化政策을 쓴 것이다. 그러나 유구한 民族史와 優秀한 民族文化를 가진 韓民族을 抹殺하려는 日帝의 皇民化政策은 그것이 如何히 巧妙하고 徹底한 것이라 하여도 成功할 理없고 결국 破綻하지 않을 수 없었다.

總督府는 1930年代에 들어와서 「大陸兵站基地化」政策에 의거해서 「內鮮一體」의 強化를 위한 한 方策으로 徹底한 「皇民化」政策을 強行하였다.

그리고 「皇民化運動」의 具體的 方案으로서 「國民 總力 運動」과 協和會, 「皇國臣民의 誓詞」와 日本語의 強要 創氏改名과 神社參拜의 強要 「皇民化」教育의 強化 朝鮮史의 歪曲과 抹殺 등을 實施한 것이다.

첫째로 「國民總力運動」과 協和會運動을 開始하였다. 1938年 7月中日戰爭開始一周年을 期해서 總督府는 國民精神總動員 朝鮮聯盟을 結成하고 「官民協力 內鮮一體 國策에 順應해서 時難을 克服할 것」을 期하였다. 朝鮮聯盟의 下部組織으로서 行政單位의 道, 府郡島, 邑面町洞里聯盟 등의 地方聯盟과 官公署, 學校, 社會, 銀行, 金融組合, 工場, 商店 등의 各種 聯盟이 組織되고 그뒤에 愛國班을 構成하였다. 이 國民總動員聯盟은 行政機構와 一體가 된 「統治의 輔翼機關」의 全國的 組織으로 「職域奉公」을 眼目으로 하는 皇國臣民化의 實踐運動으로서 展開된 것이다.

聯盟은 愛國班을 基底組織으로 해서 每日朝會에 宮城遙拜와 皇國臣民의 誓詞를 齊唱하고 每月 日을 愛國日로 定해서 時局의 認識 國體明徵 內鮮一體의 徹底를 다짐하고 아울러 國旗掲揚과 神社參拜를 勵行했으며 第一, 第三 日曜에는 勤勞奉仕를 하였다. 全國의 愛國班數

(13) 1942年의 滿州集團開拓韓國人移民은 1,344戶數에 6,483名이고 集合開拓民은 1942年에 443戶에 2,093名이며 그리고 分散開拓民은 1941年現在 2,869戶에 10,313名이었다(滿州帝國協和會 「國內に於ける 鮮系國民의 實態」參照)

는 31萬3千餘名에 그 班員 425萬餘名으로 이들이 每日 行動을 같이 한 것이며 上記한 各種 行事 밖에도 勤勞貯蓄 「國語」生活勵行과 各家庭內의 愛國貯金 節米貯金等を 勵行하였다. (14)

1940年 10月 에는 日本內에 大政翼贊會가 結成되면서 聯盟은 物心兩面에 걸친 各部門의 諸運動을 統合해서 「國民總力朝鮮聯盟」으로 再編成되고 總督政治와 一體가 되어 「國民總力運動」을 展開하였으며 1942年 小磯總督이 就任하자 이 朝鮮聯盟에 軍部를 介사시키고 또 軍事團體를 포섭하면서 그 組織과 機能이 強化되었다.

다음 協和會는 在日韓國人에 대한 日帝의 「皇民化」政策을 試圖하기 위하여 組織된 것으로 日本政府는 1936年에 「協和事業費」를 처음 計上에서 地方府縣에 經費補助를 하고 府縣 協和會 또는 府縣事業協會內에다 協和會를 속속 結成하였다. 이리하여 1938年에는 31個團體가 結成되었다.

在日韓國人의 同化를 目的으로 하는 「協和事業」의 實施機關은 行政機關과 民間團體에서 分장했으며 行政機關은 厚生省 內務省을 中心으로 한 中央・地方機關에서 관장했고 民間團體로서는 中央 協和會 道府縣 協和會 朝鮮獎學會 등에서 實施하였다.

「中央 協和會」는 日本政府 內務警察官僚를 中心으로 組織되었고 「道府縣 協和會」는 道府縣廳의 外廓團體로서 知事를 會長으로하고 地方의 警察・學務・社會・系統의 官僚를 中心으로 生活面과 治安面의 二系統의 官僚指導體制이었다. 그리고 그 下部機關으로 警察署를 中心으로 한 支隊와 또 그 下部에 分會와 補導班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 下部機關들은 上部에서의 指令事項을 徹底히 下達普及함과 아울러 在日韓國人社會의 內部動靜 特히 思想動向을 파악해서 本部에 報告하였다. (15)

日本政府는 1939年 10月에 在日韓國人의 同化政策實施를 一層 強化하기 위하여 「協和事業」으로써 皇民精神의 涵養, 教化, 啓蒙, 訓練, 福祉, 保護活動등을 全國적으로 浸透시켰으며 戰爭末期인 1944年 1月에는 協和會를 中央興生會로 改稱하는 동시 모든 在日韓國人에게 加入登錄을 強制하고 反日的 民族의 人士를 摘發 逮捕하는 警察行政의 協力을 強要하는 동시에 志願兵 徵兵 勞動奉仕等 強制動員을 중용해서 戰爭에 積極協力하는 役割을 수행케 하였다.

(14) 綠旗日本文化研究所「朝鮮思想概觀」 pp. 37-38

(15) 協和會組織은 1942年 現在 坪江仙二「朝鮮民族獨立運動史參照」

府縣本部數	47個
支會數	1,124個
分會數	1,399個
補導班數	9,501個
補導員數	17,027名
會員數	{ 正 592,623名
	{ 準 1,046,159名
	{ 計 1,638,782名

皇民化運動의 둘째 方案으로 「皇國臣民의 誓詞」齊唱과 日本語의 使用을 強要하였다. 皇國臣民의 誓詞는 1937年 10月에 定해진 것으로 學校를 비롯해서 官公署 銀行 會社 工場 商店等 모든 職場에서의 朝會 其他 會合等 日常生活속에서 齊唱될 것을 強要하였다. 그 內容은 所謂 國體明徴, 內鮮一體, 忍苦鍛鍊등을 強調한 것으로서 결국 「教學刷新」의 三大基本綱領을 提示함으로써 自由主義的傾向을 一掃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이다.⁽¹⁶⁾

皇民化運動에 있어서는 특히 日本語의 常用이 重要視되었다. 1937년에는 總督府行政機關에 勤務하는 韓國人官吏 및 地方議員에게 日本語常用이 強調되었으며 다시 (1943년에는 「國語普及運動」이 大的으로 展開되었다. 여기서 곳곳에 國語講習所를 開設하고 또 「國語敎本」을 配布하고 雜誌, 라디오 新聞 등에서 日語學習을 講習하는 등 國語常用普及運動을 展開했으며 學校에서 朝鮮語쓰는 것을 發見하면 學校에 따라서 或은 罰金 或은 譴責 或은 處罰할 뿐더러 이것으로 操行點을 減하였으며 校外에서는 所謂 保導聯盟員이 있어서 學生의 朝鮮語쓰는 것을 發見하면 學校에 알려져 단속하게 까지 하였다. 또 官廳에 대한 陳情書를 日語로 쓰지 않으면 接受하지도 않았다. 日語 아니쓰는 것을 排日思想으로 여기고 朝鮮語 쓰는 것을 民族思想의 發露로 간주한 것이다. 이와같은 強制手段으로 日語使用을 強要했기 때문에 日本語를 解得하는 韓國人이 1938년에는 全人口의 12.38%이던 것이 1943년에는 22.15%로 增加하였다. 이 母語撲滅方針은 民族性을 없애고 民族의良心을 破滅시키려는 것이었다.⁽¹⁷⁾

셋째로 創氏改名과 神社參拜의 強要를 통하여 皇民化運動을 展開하였다. 朝鮮總督府는 1939年 1月 制令第19號로 「朝鮮民事令」을 改定하여 韓國民族固有의 姓名制를 廢止하고 日本式의 氏名制를 設定하여 「氏는 戶主가 이를 定함」이라 하였다. 이리하여 1940年 2월에 施行되자 同年 8月 10日까지 「氏」를 決定해서 届出한 것을 命令하였다. 이러한 創氏改名을 施行함에 있어서 總督府는 그 官憲을 動員해서 脅迫強要한 것이며 創氏하지 않은者의 子弟에게는 各級學校의 入學進學을 拒否하고 創氏하지 않은者는 總督府關係機關에 一切採用하지 않고 또 現職者는 漸次罷免措置를 取하고 또 創氏하지 않은者는 非國民 또는 「不足鮮人」이라 烙印을 찍고 警察手帳에 記入하여 査察尾行을 徹底하게 하는 동시에 勞務徵用의

(16) 皇國臣民의 誓詞은 兒童用과 中學校以上の 學生, 一般用의 二種類가 있었다.

(前者)

- 1) 私共ハ大日本帝國臣民デアリマス
- 2) 私共ハ心ヲ合セテ天皇陛下ニ忠義ヲ盡シマス
- 3) 私共ハ忍苦鍛鍊シテ立派ナ強イ國民トナリマス

(後者)

- 1) 我等ハ皇國臣民ナリ忠誠以テ君國ニ報ゼン
- 2) 我等皇國臣民ハ互ニ信愛協力シ以テ團結ヲ固クセン
- 3) 我等皇國臣民ハ忍苦鍛鍊力ヲ養ヒ以テ皇道ヲ宣揚セン

李萬珪著朝鮮教育史(下) 乙酉文化社 pp. 344—345

(17) 辻藤鈿一編 「太平洋戰下終末期朝鮮의 治政」 pp 199—200

優先對象으로, 삼거나 또는 食糧 등의 配給對象에서 除外하는 등 社會的인 制裁와 奸惡한 方法으로 가진 壓迫을 加하였다.⁽¹⁸⁾

創氏改名이 朝鮮民族의 家系를 박탈하고 日本의 天皇制的 家族制度를 強要하는 殘虐한 民族抹殺同化政策이었음으로 뜻있는 愛族의 人士들이 이를 拒否하고 抗議하였음은 再論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創氏改名」의 強要에도 不拘하고 期限까지 屈出한 것은 約 322萬戶 (約 80%)에 不過하였던 것이다.

다음 神社參拜의 強要는 日帝가 1919年 7月에 「朝鮮統治上 가장 緊要」한 일로서 朝鮮神社를 設立하고 1935年에 「朝鮮神宮」이라 改稱하면서부터 本格的으로 시작한 것으로서 그들의 所謂神道를 韓國支配의 道具로 삼어온 것이다.

本來 1933年以來 所謂「農村振興運動」과 함께 「心田開發運動」으로서 시작되어 神社를 中心으로한 「皇國臣民化」를 위한 精神運動이 強化되고 神社, 神詞도 急速히 增加된 것이다. 뒤에 一面一神社主義로 山間僻地의 面(村)에 이르기까지 神社를 建立해서 그 參拜를 強要하였다. 1938年 頃에 神社 約 2300에 이르고 있으며 每月 1日을 愛國日로 定해서 朝鮮神宮을 비롯한 各神社에 愛國班單位로 動員하여 神社參拜, 國旗揭揚, 皇國臣民誓詞齊唱, 勤勞奉仕 등의 月例行事를 強行하였다. 심지어는 基督教徒까지 神社參拜를 強要하고 拒否者는 投獄하고 教會도 閉鎖하였다.

넷째로 「皇國臣民化」教育의 強化가 1937年 中國侵略의 本格화와 더불어 戰時體制을 強化하기 위하여 단행되었다. 1938年 3月 朝鮮教育令을 改定해서 「內鮮共學의 一元的統制를 實現」한다는 名分下에서 日本인과 同一한 教育方針 밑에 「內鮮一體化」를 위해서 皇國臣民의 鍊成을 企圖했다. 즉 이 改定教育令에 의해서 從來의 國語를 常用하지 않은 韓國系 學校名, 普道學校 高等普道學校 女子高等普道學校를 國語常用의 日人系學校인 小學校, 中學校 高等女學校로 改名하고 教科書도 年限도 同一하게 할뿐더러 教授上의 要旨, 教科目, 教科課程 등에 關해서도 朝鮮語以外的 것은 日本과 同一하게 하는 등 韓國과 日本內의 教育制度上 差別을 많이 撤廢하였다. 그리고 이 改定令으로 從來 正科이던 朝鮮語를 隨意科로 돌렸으며 그해 4月부터는 朝鮮語를 못 가르치게 하였고 나아가서 朝鮮語使用을 禁止하였다.

南次郎總督은 上記한 「教育令改正」의 趣旨와 關聯해서 國體明徵, 內鮮一體, 忍苦鍛鍊의 三大教育方針을 밝히고 이 朝鮮教育의 三大綱領은 「朝鮮에 있어서 皇國臣民教育의 本義를 徹底히 하기 위한 것이다. — 半島 同胞로 하여금 眞實로 皇國臣民으로서의 本質에 투철케 해서 內鮮一體의 實을 顯現케 해서……」라고 밝힌바 있다. 여기서 所謂「國體明徵」은 天皇을 現人神으로 하고 君臣一體, 忠孝一本의 國體 萬世一系の 皇統을 絶對不動으로 하는 國體觀念을 全國民에게 確固히 培養하는 것을 意味하고 있으며 天皇과 國家를 위하여 獻身的

(18) 文定昌 軍國日本 朝鮮強占 36年史」下 p. 354

으로 指導하게 하는 것을 指導精神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또 「內鮮一體」는 「歷史的關係에 있어 密接不可分離의 關係를 가진 信愛協力の 精神이요 國家에서 獻身 犧牲의 精神이다」라고 하였다. 또 忍苦鍛鍊은 皇國臣民으로서 獻身報國의 精神으로 如何한 試鍊에도 견디어 目的을 貫徹하도록 活動하는 것이라 하였다.

日帝의 「皇民化」政策中에서 「皇民化」教育은 가장 中心이 되는 것으로 「皇民化」教育에는 日本語에 의한 教育 思想統制의 強化 戰爭에의 協力 「皇國臣民」의 단련강화등에 重點을 두었다. 「皇民化」教育의 內容은 우선 日本語를 「國語」로서 常用化하여 朝鮮語를 家庭學校 및 社會로부터 抹殺하는 일이고 다음 修身 歷史 및 地理의 科目을 통해서 天皇崇拜思想 內鮮一體思想의 注入에 重點을 두는 것이었다.

그리고 太平洋戰爭下의 朝鮮에 있어서 「皇民化」教育은 朝鮮人靑少年의 民族意識 思想을 一掃할뿐더러 侵略戰爭遂行을 위한 勞動力과 戰力動員을 目的으로 한 것이었다. 1943年 3월에 「朝鮮教育令」의 「大改正」이 이루어졌는데 그 主要內容은 國民學校, 中等學校, 高等專門學校 및 師範學校教育을 體系化하여 軍事教育 勞務動員을 大幅 注入시키고 修業年限을 短縮해서 學徒를 戰時動員할 수 있게 단련하는 것이다. 뒤이여 學徒를 戰時動員할 수 있는 體制를 마련하기 위하여 教育內容에 關한 強化措置가 거듭되면서 1944年度에는 民族의 人色彩가 있는 私立專門學校(普成·延禧·惠化·明倫等專門學校)의 生徒募集을 停止시키고 모든 學校教育을 戰爭遂行을 위한 軍需生産, 食糧增産에 直結시키는 體系를 樹立하였다. 그리고 1945年 5월의 「戰時教育令」에 의하여 學校 및 職場에 學徒隊가 組織되고 이로서 學徒教育은 完全히 形骸化되었다.

이와같은 侵略戰爭終末期의 動員體制 밑에서 韓國人學生은 「皇民化」教育을 받지 않을 수 없는 境地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부터 協調하는 者는 極히 一部에 不過하였고 大部分의 學生層이 「不平不滿」「反國家의 民族意識」과 「不規則無秩序」에 흐르고 反戰「不穩」行動을 露呈하게 되자 日帝는 이들에게 용서없이 取締·彈壓을 加하였다.⁽¹⁹⁾ 그러나 이러한 日帝의 奴隸的愚昧化政策이나 教育施設에 注力하지 않아 普通學校조차 志願者를 全部收容하지 못하였다. 例컨데 1932年度에는 普通學校志願者 12萬7千餘名중에 10萬3千名이 入學했고 高等普通學校 志願者 9459名중 3466名이 入學·女子高等普通學校志願者 2280名중 1496名이 入學하고 있으며 專門學校入學에는 韓國人學生이 半數를 超過해서는 안된다는 不文律이 있어 制限이 더욱 甚하였다. (1932년에 京城帝國大學志願者 353名중 45名이 入學 專門學校는 志願者 1722名중 622名이 入學했다). 그리고 1943年度의 國民學校에 韓國人兒童의 就學率은 62%에 不過하였다.

다섯째로 日帝는 「皇民化」運動의 一環으로 朝鮮史의 歪曲·抹殺을 試圖하였다. 1932年

(19) 近藤劬一編「太平洋戰爭終末期朝鮮의 治政」 pp. 69-70

12月 齋藤總督은 「文化政治」를 표방하면서 韓國의 植民統治를 正當化하려는 企圖 밑에서 「朝鮮史編纂委員會規程」을 訓令으로 公布하고 大規模의 史料蒐集과 編史事業 10週年 計劃을 樹立하였다.⁽²⁰⁾ 朝鮮總督府는 「朝鮮史」의 編纂을 重要視하고 이를 보다 強力히 推進하기 위해서 1925年 6月 勅令으로 「朝鮮史編修會官制」를 公布하고 「朝鮮史編修會」를 組織하였다. 編修會는 1938年까지 「朝鮮史」 35卷 및 朝鮮史料叢刊(20種) 朝鮮史料集眞(3帙) 등의 史料를 刊行하였으나 그 編修委員 修史官에는 朝鮮人研究者로서 李能和, 洪憲, 崔南善, 李丙燾, 申鎬等 少數人이 參加하였으나 그들의 意見은 거의 採擇되지 않았으며 大體로 韓國人史家들 兪은이 事業을 日本帝國主義의 侵略的文化政策으로서 植民史觀을 扶植하기 위한 것으로서 看做하고 協力하지 않았다.

「朝鮮史」編纂事業은 韓國人民으로 부터 民族史研究의 自由와 權利를 박탈하고 韓民族의 主體的發展의 歷史를 敘述하는 것보다도 韓國이 中國의 「屬國」이며 自立獨立思想보다도 「事大主義」에 偏重되고 있고 中國이나 日本보다 歷史와 文化가 뒤떨어져 있고 韓民族이 劣等하고 後進의이며 韓國文化의 淵源과 獨自性を 否定하고 나아가서는 日本의 韓國侵略의 「合法性」등을 立證하기 위한 史料의 取捨選擇 史料의 歪曲을 加해서 「皇國臣民化」에의 目的에 利用하려는데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듯 朝鮮總督府의 支援下에서 朝鮮史編修會事業을 위시한 朝鮮古蹟研究事業, 古蹟保存事業 및 古蹟, 慣習調查事業등 總督府行政機關의 管理下에서 實施되던 調查研究는 勿論이고 日本內의 史學會其他이 所屬되었던 것이 모든 日本人學者의 朝鮮史研究가 朝鮮史를 歪曲하고 抹殺하려는 總督府의 政策에 協力하고 順應한 것이었다. 한편 韓國人史學研究者에게는 自國의 歷史를 研究하는 機關도 없었고 또 그 自由도 없었다. 그나마 少數의 韓國人史學研究者에 대해서도 朝鮮王朝實錄같은 基本的인 史料를 自由로 利用할수도 없는 形便이었다. 韓國人研究者에 의한 民族的觀點 韓民族의 主體的發展, 民族文化의 獨自性, 優秀性을 서술한 研究가 極少數나마 刊行되었지만 이들은 無視되거나 沒收 發禁處分되거나 또는 研究者가 檢査되기 조차 하였다.

第四節 民族抗拒運動의 彈壓

1930年以後 日帝는 言論 出版文化活動의 彈壓을 強化하고 民族獨立運動에 대해서 苛酷한 彈壓을 加했으며 朝鮮語學會와 基督教徒를 彈壓하였다.

1931年以來 日帝는 韓國에서 「內鮮一體」 強化 「皇國臣民」의 強要 時局認識의 徹底,

(20) 「朝鮮史編纂委員會」는 政務總監을 委員長 李完用, 朴泳孝, 權重顯을 顧問 今西龍 稱業岩吉 鄭萬朝, 李能和, 魚允迪, 洪憲 등을 委員으로 하였다.

軍事思想의 普及 國民精神의 提揚 및 國家總力의 集中化를 推進하기 위하여 言論機關을 加一層 統制하였다. 즉 言論彈壓을 위한 惡法인 出版法과 新聞紙法 그리고 各種新聞雜誌에 檢閱制 削除 또는 出版不許可 등이 시행되었다. 韓國人의 集團的인 또는 個人的인 訂正·撤廢要求이 도 不拘하고 이들 惡法과 彈壓은 敗亡時까지 存續하였다. 그리고 1930年代 初期에 韓國에서 發刊된 日刊新聞紙는 韓·日·英文合計 31種(韓國文 7, 英文 1, 日文 23)이고 新聞은 東亞日報, 朝鮮日報, 時代日報, 中外日報, 中央日報 등이 있었으나 總督府의 干涉과 抑壓이 甚했고 財政難으로 經營難에 봉착했으며 여러차례의 休刊, 停刊, 差押의 쓰라린 經驗을 거듭하면서 民族日刊紙로서 오래동안 남은 것은 東亞日報과 朝鮮日報 程度이었다. 그러나 1940年 8月 10日을 最後로 韓國語의 民族新聞인 朝鮮日報과 東亞日報가 強制的으로 廢刊되고 그밖에 모든 出版物을 極度로 統制했으며 그 代身 防共朝鮮 思想報國등의 軍事獨裁的 出反物이 刊行되었다.

한편 總督府機關紙 京城日報(日語)의 姊妹紙인 「每日新報」(朝鮮語)는 總督府의 御用紙인 京城日報로부터 獨立한후 半官半民 株式會社의 每日新報가 되었으나 外面上 崔麟 李相協等 韓國人을 經營陣으로 登場시켰을뿐 實質上 總督府가 그 實權을 掌握하고 「皇道」와 「內鮮一致」를 主唱하면서 軍國日本의 言論政策과 戰爭宣傳의 推進을 담당했던 것이다.

總督府는 1941年 1月 新聞紙等 掲載制限令을 公布하여 新聞紙記事에 대한 檢閱標準을 「新情勢」에 對處해서 一層嚴格히 制限하였으며 同年 12月 「言論, 出版, 集會 結社等 臨時取締法」을 公布해서 結社集會를 許可制로하고 既存의 結社를 新規許可를 억도록 했으며 또 「記事差止事項」을 提示했다.

日帝는 또 朝鮮語文 民族藝術 創作活動 등을 彈壓하는 一方 1939年 10月에는 總督府에 御用하는 見日의 文化人을 모아 文人團體 「朝鮮文人協會」를 組織했다. 文壇의 「國語化」를 促進하고 文人作品의 國策協力 戰地에의 作家動員을 꾀했다. 뒤이어 1943年 4月에는 「國民總力 朝鮮聯盟」이 中心이 되어 朝鮮文化協會 朝鮮歌人協會 朝鮮俳句作家協會 등 5團體를 統合해서 「朝鮮文人報國會」를 組織하고 朝鮮에 있어서 文學者의 總力을 大東亞戰爭目的에 集結시킬것을 目的으로 活動에 함으로서 民族文學의 抹殺을 企圖했다. 또한 1945年 6月에는 全國의 言論人을 규합해서 「朝鮮言論報國會」를 組織해서 「內鮮一體」「大東亞建設」의 思想戰을 展開했다. 한편 綠旗聯盟 東洋文光社 大東一進會 婦人問題研究會 등의 「內鮮一體化」의 御用的 民間運動을 助張했다.

以上과 같은 言論 出版 文化에 대한 彈壓과 아울러 日帝는 各方面의 民族獨立運動의 彈壓을 強化했다. 우선 日帝는 韓民族의 國內뿐만 아니라 中國, 日本, 滿州 間島等地에 있어서의 獨立運動에 대해서 日本의 「國體變革」을 企圖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일체 治安維持 法違反으로 彈壓하였다. 그리고 1930年代 日帝總督府는 韓國內에서의 빈번한 勞動爭議 小

作爭議 農民蜂起等에 대하여 또는 讀書會 同盟休校等 各種의 反日, 反戰學生運動에 대해서 탄압을 加하고 나아가서 滿州 中國間島地方에 있어서의 抗日武裝團體에 대해서 가차없는 彈壓을 加하였다.

한편 日帝警察은 1942年 10月에 朝鮮語學會를 急襲해서 李允宰, 李克魯等 語學者를 逮捕했다. 이는 朝鮮語學會가 學術團體를 假裝한 民族主義獨立團體라는 理由때문이며 結局 韓國民族으로 간디 母國語를 박탈하는 民族抹殺과 皇民化政策을 露骨化한 事件이었다.

또 日帝가 皇民化運動과 「內鮮一體化」를 強制的으로 推進하는데 있어서 朝鮮에 있는 約 50萬名의 教徒를 가지고 있는 基督教에 대한 彈壓과 懷柔政策을 자행하였다. 1931年以來 總督府는 在年 春秋二期에 警察署에 의한 日人韓人基督教信者의 懇談會를 開催케해서 內鮮一體化를 强要했을 뿐더러 神社參拜를 强要함으로써 이를 彈壓했다. 여기서 神社參拜를 拒否하는 基督教系의 많은 學校가 閉鎖되었고 社會指導的人物은 監視와 懷柔工作의 對象이 되었으며 檢査投獄되었다. 1941年 12月 大平洋戰爭을 前後해서 宣教師는 韓國에서 追放되고 韓國人牧師 教會는 迫害를 받고 逮捕 投獄되었다. 以後 約 2000名의 牧師 基督教信者가 投獄되고 200餘의 教會가 閉鎖되었으며 50餘名이 獄死되었다.

總督府當局은 教會에 대하여 日曜日에 禮拜와 아울러 時局講演會開催나 勤勞奉仕 戰爭讚美, 皇國臣民의 誓詞, 皇道實踐 傳道報國等を 强要했고 또 1942年 3月에는 溫順한 教會指導者로 하여금 日本基督教朝鮮革新教團을 組織케 해서 舊約聖書의 全廢 新約聖書의 改訂 讚美歌抹殺과 더불어 教會의 分裂을 助長했다. 또 1945年 7月에는 朝鮮의 新教派를 日本基督教朝鮮教團으로서 日本基督教團에 隸屬시켰으며 이에 反對하는 教徒에 대하여 投獄, 追放, 緘口令, 禁錮令等 가차없는 彈壓을 加하였던 것이다.

무릇 1930年代는 日帝가 韓國에 대한 植民支配體制를 確立한후 大陸進出을 위한 侵略戰爭을 擴張行한 時期로서 드디어 1940年代 前半期에서 太平洋戰爭을 挑發하고 結局敗亡의 幕을 내린다. 其間에 日帝는 韓國을 兵站基地化하고 人的物的 資源을 強制動員하는 동시에 民族抹殺의 皇民化政策을 強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韓民族은 꾸준히 獨立解放運動을 展開한 것이다.